“6·15선언 뜻 이어 평화통일 기원”

세종 광제사, 호국위령재 봉행
스님 출신 홍범도 장군 다례도
탄대 스님 “남북은 생명공동체”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 광제사는 6월 15일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 기원 세계평화 · 남북평화통일 기원 호국위령재’를 봉행했다.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기원 세계평화·남북평화통일 기원 호국위령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의식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한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다례재도 함께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주지 탄대 스님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경원사 주지 효림 스님, 용주사 용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 신도국장 영범 스님, 2군사령부 무열사 주지 현조 스님·부주지 눌지 스님,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야허 스님, 17전투비행단 호국영축사 주지 자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주지 탄대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6·25 참전 호국영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분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세웠던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진리를 설하셨듯 남과 북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생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홍범도 장군 다례재의 의미를 설명하며 “홍범도 장군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행했던 스님이었지만 지금까지 다례재를 봉행한 사례는 없었다”며 “광제사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수행자의 삶을 함께 기리는 다례재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봉행해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특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 광제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뜻깊은 행사가 봉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당선인은 추모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종교육청은 학생들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 대표 한준서 한국영상대학교 학생은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되새겼으며, 어린이 대표 현명빈 도담초등학교 학생은 발원문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감사드리며 온 세상이 평화를 기원했다.

광제사는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평화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으로는 한국영상대학교 한준서(영상촬영조명과)·최경준(공연예술평생교육학과)·송인의 학생이 선정됐다.

한편, 세종 광제사 경내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 평화문화제에서는 호국위령재 세계평화사진전이 마련돼 금강산 신계사와 유점사를 비롯한 북한 사찰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선보였다.

화엄사 여름밤, ‘인문학’으로 수놓는다

‘화야몽’ 7·8월 진행…7월 3일까지 접수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여름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차와 문학, 전통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인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화엄사는 7월 18일과 8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내에서 여름밤 인문 프로그램 ‘2026 화야몽(華夜夢)’을 개최한다.

‘지리산 바람이 지나고, 별빛 아래 차 한 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년고찰 화엄사의 밤 정취 속에서 차와 문학, 음악과 사유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소규모 야간 프로그램이다. 특히 구례의 대표 전통음악인 ‘구례향제 줄풍류’ 식전공연이 마련돼 지리산의 바람과 별빛,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전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7월 18일 열리는 ‘차의 세계’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장 덕제 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차 문화의 의미와 역사, 차와 수행의 관계를 소개하고 산사 차 명상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화엄사의 여름밤 속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8월 22일 열리는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이다.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는 고향과 가족, 역사와 삶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 작가는 소설집 〈행복〉 〈봄빛〉 〈숲의 대화〉 〈자본주의의 적〉과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 〈아버지의 해방일지〉 등을 집필했으며, 김유정문학상과 만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참가 인원은 30명이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의 여름밤은 낮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지리산의 바람과 별빛 속에서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는 시간”이라며 “화야몽을 찾는 이들이 천년고찰 화엄사의 품 안에서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평온한 밤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7월 3일까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들, 운문사서 마음 내려놓다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
6월 13일 ‘원데이 명상’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는 6월 13일 운문사 선열당과 만세루 등에서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에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돌보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회장 무영 스님)는 6월 13일 운문사 선열당과 만세루 등에서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제29회 졸업생들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마음을 켜다, 지혜를 밝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능인중, 청도고, 개운중 학생 및 동련 어린이청소년연합회 회원 등 청소년 불자 108명과 운문사승가대학 동문 스님, 학부모와 교사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집중력과 자기돌봄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 연수법회를 겸해 진행되며 청소년과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입재식에서는 BBS불교방송 ‘원영 스님의 마음 TALK’ 진행자인 원영 스님이 ‘미래를 여는 문’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문사수명상원장 일중 스님이 선명상 지도법사로 나서 구체적인 명상 방법과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학인 스님들의 법고 시연을 시작으로 운문사 도량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걷기 명상에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호흡명상과 싱잉볼 명상, 스님들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다.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장 무영 스님은 “마음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 도량의 새소리와 물소리, 바람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보길 바란다”며 “세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 마음의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으로 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운문사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백고좌수계법회

6월 13일, 월정사·온라인서
5000명 동참…불교 중흥 발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의 대표 신행 결사체인 금강경봉찬기도회는 6월 13일 월정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백고좌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5000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참여 대중들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올바른 신행문화 정착을 발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총무국장 인광 스님이 갈마아사리, 수행원장 자현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나섰다. 또 스님 100명이 수계법사로 동참해 금강경봉찬기도회 회원들의 수계를 증명했다.

정념 스님은 법문에서 “문명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성불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받은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는 수행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계의식은 수계법사 스님들이 직접 연비를 진행했으며, 소이회 팀장과 지역별 차량 대표들에게 수계첩을 수여했다. 또한 소이회에서 2년 이상 봉사해 온 회원들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제5대 김윤봉 학장 취임

6월 14일 대법당서 취임식
설정 스님 초청 법회도 봉행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학(이사장 백준기)은 6월 14일 4층 대법당에서 김윤봉 제5대 학장 취임식 및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김윤봉 학장〈사진〉은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 4기와 법사과를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전북불교대학 출신 최초의 학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포교대상, 불자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학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 발전과 수행공동체 구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김 학장은 “우리 모두는 3000년 전 영축산에서 부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인연으로 금생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올해 우리 불교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발원을 세웠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로부터 내 안의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는 깊은 성찰로 지혜를 깨달을 때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전북불교대학이 수행과 화합, 포교가 주체가 되는 대학으로서 모범이 되는 수행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증명 법사로 나선 설정 스님은 인류 문명의 위기 속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했다. 스님은 “대립과 갈등, 전쟁으로 얼룩진 현대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할 마지막 희망은 오직 불교뿐”이라며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한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은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며 아름답고 지혜로운 참생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붓다라마사, 송끄란 축제

6월 14일 새해 축제 봉행
관불 의식 · 태국 음식 나눔



천안 태국불교 붓다라마사(주지 찌라삭 스님)는 6월 14일 태국 전통 새해 축제인 ‘송끄란(Songkran)’ 행사를 봉행했다.

송끄란은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태국 전통 새해 맞이 축제로, 물을 뿌려 액운을 씻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행사다.

붓다라마사는 한국의 기후 여건과 재한 태국인 공동체의 참여를 고려해 송끄란 행사를 6월에 열고 있다.

행사는 참석자들이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정성껏 준비해 승가에 공양하며 보시의 공덕을 쌓고, 승가와 재가가 서로 의지하며 청정한 신행공동체를 유지하는 탁발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어 진행된 불상 재현 행렬에서는 태국 북동부 농카이 지역에서 신앙되는 평화와 복덕, 보호의 상징인 루앙포 프라싸이 불상이 등장해 참석자들이 꽃과 공양물을 올리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 평안을 기원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물 축제에서는 루앙포 프라싸이 불상 행렬이 경내를 돌며 참가자들의 축원을 받았다. 재한 태국 교민들과 한국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했고, 태국 전통 공연도 함께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70여 종의 태국 전통 음식과 간식, 음료가 마련돼 참석자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며 태국의 음식문화와 공동체 정신,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찌라삭 스님은 “송끄란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의 가치를 되새기는 태국 불교의 중요한 전통 명절”이라며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 불자들과 함께 불교적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여래종, 인왕 대종사 ‘사리보탑’ 제막

탄생 100주년·원적 10주기
명안 스님 “다보탑 본떠 건립”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6월 7일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연화경 인왕 대승정 연화 사리보탑 제막식 및 여래종 60년 중흥 종사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래종의 개산창종조인 인왕 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이자 열반 10주기를 맞아 마련됐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사리보탑 건립은 대약사사 주지 혜안 스님이 지난 3월부터 직접 석축 밑에 돌담을 세우고 작업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원력의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보탑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 “형태는 불국사 다보탑을 본떴으며 높이는 7m에 달한다”며 “이번 불사는 인왕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4개월 여에 걸쳐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이 혼연일체가 돼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사리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 정신, 자비와 지혜의 공덕을 후세에 전하는 살아있는 법당이며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며 성스러운 불사의 원만 성취를 찬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인왕 대종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렸다. 홍파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옥천 대약사사를 창건하고 대가람을 일궈 중생 구제의 큰 원력을 세우셨다”며 “그 원력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미얀마와 스리랑카 등 해외로 뻗어나가 세계 평화와 불교 융성의 든든한 주춧돌이 됐다”고 상찬했다.

여래종 개산창종조 인왕 대종사는 1987년 한국불교여래종을 창종하고 1995년 총본산 대약사사를 창건했다. 스리랑카 불교최고승계 승왕에 오르는 등 평생을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화에 헌신했다.

노덕현 기자